

주안예교회 News InChrist

주.안.예.교.회.뉴.스.레.터.



03
Mar. 2023
Vol.11 No.03

통권 103호

- 제26기 주안예만남
- 교육관 신축 기공예배
- 골프 토너먼트
- 교육부 / 주안예훈련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f](#) [ig](#)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cccla.org



주안예교회 선교위원회에서 지난 3월 29일 나바호 원주민 교회와 리더들에게 말씀훈련을 하고 있는 '크리스천 바이블 아카데미' 를 찾아 협력 사역을 논의했다.

‘나바호 지역 복음전파의 비전’

■ 'ICC 미션' 선교지 탐방

선교사님을 만나기 위해 선교지로 향하는 발걸음은 언제나 역사하시고 함께하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약간의 긴장과 흥분이 됩니다.

2023년 3월 말 현재 우리 주안예교회가 선교 협력하기로 한 선교사님은 선교기관을 포함하여 50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직접 선교지를 돌아보며 선교 현장을 더 파악하고 선교사님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운영섭 피택장로, 윤혜수 권사, 김옥희 권사가 저와 함께 3월 28일 출발하여 1박 2일간 나바호 선교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애리조나 나바호 원주민 지역은 이남중, 이선희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사님의 사역 중에 Christian Bible Academy에서 말씀훈련이 진행되는 것을 보기 위해 선교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나바호 선교센터는 우리 주안예교회에서 약 488마일 거리에 있고,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약 7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선교사님은 애리조나 나바호 지역에서 현지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에게는 말씀훈련과 영성훈련을 돕는 일, 어린이들에게는 수학 과목 등의 기초학습을 도우며 말씀과 비전을 심어주는 사역을 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교회들과 나바호 원주민 교회들을 연결시켜 지속적으로 협력 및 후원하도록 돕고 교회들이 VBS, 선교활동 등을 할 때 그 사역을 협력하고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장로님들과 김현권 목사님이 함께 현지 나바호 지역과 교회들을 돌아볼 때는 희망없이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삶이 매우 안타깝고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4면에 계속)

| 김경일 장로 |

산간벽지에 세워진 학교 '복음의 빛줄기' 되기를

■ 네팔 선교봉사 트립

지난 3월 초 열흘간, 김경배 장로, 문성훈 집사와 함께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에서 사역하는 이세정 선교사가 인도 국경 지역에 새롭게 시작한 드림비전 아카데미의 개교를 축하하고 몇 가지 시설공사를 도왔습니다. 우리 일행은 카트만두에서 이 새로운 학교에 가기 위해 자동차로 약 7시간을 운전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에게 왜 이곳을 학교로 선택했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성령이 그를 이 곳으로 인도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학교에서 며칠을 보낸 후, 하나님이 왜 이 선교사들을 이 외딴 곳에 보내셨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작은 마을의 인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언을 사용하고 대부분 네팔어(네팔의 공용어)를 말하지도 쓰지도 못하는 여러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네팔 공동체에서 생활할 수 없습니다. 이 학교는 네팔어와 영어, 그리고 다른 기초 학문(네팔의 역사, 수학, 기초 과학 등)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학교에

서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복음을 조심스럽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인근마을 주민들을 위해 집의 전기고장을 수리하고 시설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는 카트만두에서 11세에서 17세 사이의 소녀들을 위한 고아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방치된 아이들이나 부모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고아들은 죽었거나 길거리에서 매일 식사를 구걸했을 것입니다. 10년 전까지 미국 시카고의 편안한 곳에서 그를 선택하셔서 네팔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 김현권 목사 |



제97회 정기노회, 최혁 담임목사 노회장 선출

■ 노회 소식

지난 3월 14일(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주안예교회 벨리채플 본당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총회 서부아메리카노회 제97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최혁 목사의 사회로 열린 노회에서는 장로 부노회장인 정도영 장로의 기도와 노회장 김원락 목사의 설교말씀에 이어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이어 노회의 현안과 여러 안건을 처리하고 신임 노회장인 최혁 목사와 더불어 함께 사역할 부노회장과 서기 목사를 선출하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많은 회원들께서 참석하셨고, 부득이 원거리에 계신 회원들께서는 ZOOM 으로 참석하셨으며,



회의를 마친 후에는 주안예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며 앞으로 노회의 발전과 비전에 대해 많

은 이야기를 나누는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이광영 기자 |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성전을 건축케 하옵소서

■ 교육관 신축 기공 감사예배

지난 3월 6일(월) 오전 9시 30분, 벨리채플 현장에서는 소채플 기공 감사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차세대 일꾼들을 위해 꼭 필요했던 교육관 건축이, 그동안 기도하고 노력했던 성도들의 바람대로 이제 실제로 이루어져 그 공사의 첫삽을 뜨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요, 그동안 우리의 자녀들은 물론 장년부에서도 여러 용도로 사용할 공간이 부족하여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이제 소채플이 완공되고 나면 더욱 많은 공간에서 모임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혁 담임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조용대 장로의 기도에 이어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 ‘성전을 축복하소서’가 새로이 들어설 터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쌀쌀할 것이라는 날씨예보는 기우였고, 햇볕이 쨍하고 나더니 300여 성도가 원근각처에서 달려와 함께 자리에 앉자 이제는 구름이 해를 잠시 가리어 주어 청명한 최적의 날씨도 우리를 축하하며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해주었습니다.

최혁 담임목사는 역대하 2장 1절~3절, 역대상 28장 5절~6절의 말씀을 통



해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 이심을 전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을 택하사 성전을 건축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성전을 위해 준비하시고 행할 시기와 말을 자를 정하시고 시행하셨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소채플을 건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OC 채플 성도님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을 주문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할 때에, 함께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세가지의 복에 대해 말씀하였습니다.

합심 기도에 이어서 교회를 대표해

서 10분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시삽식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찬송가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합창하고 최혁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일을 맡아서 진행하는 최형선 집사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동역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성전이 완공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 지 기대하며 소망을 갖고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주안에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동참을 기대합니다.

| 이광영 기자 |

50여 선수들 열전, 친목·건강·건축 동참 ‘일석3조’

■ 주안에할배 골프 토너먼트

지난 3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Granada Hills에 소재한 놀우드 컨트리클럽에서 54명이 참가한 주안에교회 골프 토너먼트가 열렸다.

특히 최혁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은혜롭고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에서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조용대 장로님, 이광영 집사님이 오셔서 축하해주고 사진 촬영도 하였다.

주안에할배 골프클럽 회원과 참가한 교인들의 친목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소채플 건축기금 모금도 겸한 토너먼트가 이규환 회장, 고용흠 총무와 김재동, 이명주, 박웅기 진행 위원들의 수고로 잘 마무리 되었다.



이날 골프 토너먼트 영광의 챔피언은 손스텔라 권사, 엄우진 군, 근접상에 윤영섭 피택장으로 신혜민 피택권사, 장타상에 구동현집사, 이윤아 집사, 행운상에 정창언 집사가 수상하였다.

한편 소채플 건축기금 모금동참 골프대회는 목표액이 2배 가까이 초과 달성하였고 이를 교회 담당자와 협의하여 은혜롭게 활용될 것이라 한다.

| 나형철 기자 |

■ 이달에 만난 사람/ 김혜순 권사

‘나의 힘이 된 성경통독... 요게벳 사역 큰 은혜’

주안예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주안에말씀이란 훈련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함께 읽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으실거라 생각한다. 사실 1년 1독도 삶의 분주함 속에 큰 도전이건만 그 통독을 2년동안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묵묵히 4번째 함께 하고 계시는 권사님이 계신다.

늘 선한 미소와 따뜻한 섬김으로 목장의 부리더역할을 감당하시는 권사님께서는 본인이 주안예교회에 와서 제일 좋은 점이 바로 성경통독 프로그램 이라시며, 매번 읽을 때마다 성경말씀이 삶에 채워지고 때마다 새로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다. 매번 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늘 연약한 자신을 가장 잘 알기에 이렇게라도 말씀에 메이고 붙들리고자 성경통독을 절대 놓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사실 권사님이 주안예교회에 오시기 전에 삶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으로 주님께 “주님 제게 딱 2달만 쉼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드렸는데 그후 바로 코로나가 시작되었다며 그 시간을 통해 목사님의 설교를 CD로 듣게되고 그 은혜로 주안예교회로 오셔서 쉼을 통해 성경통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셨다.

늘 그렇듯 모든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감사를 떠올리시는 권사님은 따뜻한 성품처럼 현재 요게벳을 섬기고 계신데, 사실 권사님께서서는 주안예교회에 오게 되면 제가 잘하는 게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니 그건 꼭 섬기겠노라 하나님께 서원을 하셨는데, 그 즈음에 주안예교회에 요게벳이 생겨 그 약속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오셨다고 수줍게 웃으시며, 매주 아이들의 그 오물조물 작은 입과 양증맞은 몸으로 힘차게 찬양을 따라부르고 귀



엽게 울동을 하는 모습을 보며 큰 위로와 은혜를 받으신다며 “우리 요게벳 아기들은 매주 부흥회를 하는 것 같아” 라고 자랑하신다.

어려움을 여쭙보니 요즘 교회에 새가족이 많아져 때로는 양손으로 유모차를 밀고 아이들을 챙길 만큼 손이 부족해 함께 섬겨줄 귀한 손길이 더 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도 나누주셨다.

삶의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들을 담대히 주님 손을 붙들며 넘어오신 권사님의 간증들이 성경통독으로 더 단단히 다져져, 늘 주님의 인자함과 사랑이 묻어나는 믿음의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가시길 응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 이현영 기자 |



■ 나바호 선교센터 방문

〈1면서 계속〉 그러나 이번에 Christian Bible Academy에서 16명의 훈련생들을 보며 밝고, 열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좀 더 젊은 분들이 많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했으

의 기회를 주셨으니 나바호 지역 복음 사역에 해야 할 일들이 있으리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다녀온 다음 날 3월 30일 나바호 대통령(나바호 원주민 지역은 투표로 선출되는 대통령제임)이 Christian Bible Academy에 깜짝

방문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주일학교 때 VBS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대통령은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1시간 수업을 참관하고 훈련생들과 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소식을 선교사님이 사진과 함께 보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에 사람들을 보내서 섬기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심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안예교회에 올해 선교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선교 역량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며 앞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선교사님들을 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소망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형편과 동기는 달라도 '부르심의 은혜' 같은 감사

■ 제26기 주안에만남

2023년 3월 25일 2부 예배 후 제26기 주안에만남이 주안에교회 101실에서 있었다.

화사한 핑크로스와 핑크색 데코로 장식된 환영식장에는 30여 명의 새가족들이 모여들었다. 새로운 만남은 언젠가 설렘을 안겨주며 서로를 알아가는 기쁨이 있다. 환영식장의 은은한 찬양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길을 만들며 우리들이 하나되는 길잡이가 되어준다.

맛있는 양식코스 디너 후에는 최혁 담임목사님의 목회 비전 및 목회 철학과 10년 전 주안에교회를 개척하게 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형식으로 말씀하여 주셨다.

새가족들은 각자의 형편이 다르듯이 주안에교회로 오게 된 동기도 매우 다양했다. 김승훈 집사와 김정희 권사 부부는 어떤 계기를 통하여 갑자기 교회를 찾고 있을 때 믿을 수 있는 권사님이 소개하여 지난 1월 8일 등록하였다. 김정희 권사는 현재 주안에라이프에서 미술강사로 섬기고 있다.

황성숙 집사는 언니가 믿음생활 하고 있는 주안에교회에서 너무 행복하여 나 또한 한 번 와서 보니 목장식구들이 너무 좋아 등록하게 되었다고 한다.

박철, 박금자 집사 부부는 지난 5년간



매주일마다 집에서 두 분만이 오붓하게(?) 예배 드리다가 어느 기도회에서 주안에교회에 다니지도 않는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소개해 주셨으며 작년 3월부터 금요일예배만 참석하여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쏟으며 나의 죄성을 보게 하셔서 등록을 기쁨으로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정브라이언, 제니 성도님은 웨퍼드교회를 다니다 어머니 품같은 한국 교회를 그리워할 때 친구의 소개로 등록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번 새가족 가운데에는 캄보디아인

부부인 과나쑤, 테리티양 부부도 있었다. 한국에서 7년간 거주 하였고 김치찌개를 유난히 좋아했는데 마침 큰 딸 에스터의 어린이 학교에서 소개받아 주안에교회를 등록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번 26기 주안에만남에서 특별히 감사드리는데는 평생 처음 예수 믿고 교회에 등록이라는 걸 해보았다는 몇 분이 계셨다. 최혁 담임목사님의 부탁으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서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주실 것을 부탁 하였다.

| 임용자 기자 |

'첫 예배, 성도들의 기쁨이 느껴져'

■ 새가족 소개

11년 동안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식구처럼 서로의 믿음을 응원하며 지냈던 친구이자 동역자분들과 함께 속해있던 믿음의 공동체를 뒤로하고 남편이 직장을 옮기면서 이곳으로 온 지 한 달 남짓, 오레곤에서부터 어느 교회가 있나 Thousand Oaks 인 집 근처 교회를 찾고 있다가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시는 윤명렬 집사님(처; 윤동운 권사님) 부부의 소개로 주안에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리던 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한 목소리로 답하시는 목소리에, '아~ 모두 예배를 기쁘게 한마음으로 드리시는구나'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성경통독이나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에서 제대로 열심히 해보고싶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본 교회의 제자 훈련 프로그램 등

상세한 설명을 듣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진정한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확신에 기뻐했습니다.

'주안에만남'에서는 정성스러운 음식과 환영을 받으며 목사님의 목회의 방향을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최혁 목사님의 금요일예배 중 설교와 지난 주 설교에서 제가 늘 하나님을 믿는다면 햇갈려하고, 제 스스로 세상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세상 것들을 구하기만 하는 제 기도가 죄송스러우면서도 반복되는 저의 믿음이 답답하기만 했었는데, 명확하게 설명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섬기고 뚜렷한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매일의 삶을 함께 걸어갈 기대해 봅니다. | 음미경 집사, 이승민 집사 |

■ EM Ministry House Invitational

Family of God

As someone who's been to Matthew Yang's house quite often, whether it be for a hangout or other church gathering, going with the EM family this time around reminded me how generous and welcoming the Yang family is. It was a very comfortable and warm place to have fellowship in, with everyone genuinely interacting with one another as a family, almost like it was some sort of Thanksgiving gathering.

There was laughter, there was some banter, and the food was absolutely amazing, one of the best chicken I've had in a taco for a long, long time. However, in addition to all the good things that came from this home invitational/visitation, it's always good to know that the EM family is supported by so many and that no matter which house we may be invited to, we are able to draw closer to one another as God's people and in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Very grateful once again to Matthew Yang and his family for opening up their home for us and allowing us to experience their wonderful hospitality/care for the EM family.

As we continue to pray for God's love to surround us and be



the center of our unity, we will also grow to share that love onto others and remember these days where it was shown to us. It was a fun and wonderful experience, thank You God and I'm excited for the many memories that are to come in the future.

Joshua Kim

■ Meeting Missionaries/ Chimi Dorji (Bhutan)

Serving My People with Gospel

I am Pastor Chimi Dorji from Bhutan, born and brought up in Christian family. I am a second generation Christian. I am married and have two sons, Joshua (16) and David (13). I am only the son in a family with five sisters

Even though I was born and brought up in Christian family but I had little knowledge about Christ because most of the time I was away from home for school. There was no school in our village and I have to stay with my sisters and sometime in hostel. Surrounding circumstances was filled with Buddhist and Hindu influences and in school we have to practice Buddhist religion because Bhutan is a Buddhist country. Every morning and evening we have to chant Buddhist prayer. Most of the time I spent my time with friends from Buddhist's background and it was difficult to say that you are Christian because you were not allowed to practice Christianity. There was lot of threats from



society and it was not easy to practice your own faith. Whenever I go home during vacation I get privilege to go to Church (house church). In this way I was grown up and did not have much good relationship with Christ. If you see in Bhutan, every place is filled with monasteries and Dzongs. You will not find church building even now, all the churches in Bhutan is conducted in the house.

Whenever I go home I am Christian but when I am away from home I am normal person like others but my father was praying for me. He

wanted me to serve God but it was not my dream. I wanted to become mechanical engineer and got admission to engineering college but my father did not allow me to continue. Finally, I was sent to the Bible College in Indian where I received Christ as my personal savior. People go to Bible College after accepting Christ as their personal savior, so that they can serve the living God but it was opposite for me. From there I committed my life to Christ and it was my goal to equip myself and be a missionary to my own people. I had a burden to reach my own people living in Bhutan. After completing my study in Indian and Korea I came back to my own country. From the year 2009, I was involved in ministry, especially focusing Ngalong (Western and Central Bhutanese). They are least reach people group and I want to reach them with gospel.

* Pastor Chimi Dorji is ICCC Collaborative Missionary

Sewing for God

■ Meet EM Staff/ Paul Yang

The EM ministry is fortunate to have many hardworking and committed members, serving for the glory of God and helping spread the good news to the ICCC congregation. Without their faith in God and their perseverance, none of this would ever be possible. This month, we get to know one such dedicated member in our very own Paul Yang.

Paul has grown up in the church, serving since an early age. In fact, serving in church ministries has been a natural and regular part of his life. "I was serving because in the beginning I had to," says Paul. "But gradually for me it became a blessing and through serving and loving others, you love God." He first joined ICCC after being asked by his parents to serve in the children's ministry as a second grade teacher. But to his surprise, he was then placed in ICY, where he worked with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before also serving in the EM ministry. Now, Paul is an integral member of ICCC as a leader in EM, translator for the KM services, and a member of EM's media team.

His commitment in church is accompanied by his role as chief opera-

tions officer in his family's many businesses. Add this to the fact that Paul currently attends USC's Masters in Law program, from which he is slated to graduate in the spring of 2023. But with the many responsibilities he has, Paul always starts his day at 4:30 AM, tuning into ICCC's dawn service via zoom, accompanying an early session of cardio on his stationary bike. "It's an integral part of every single day," says Paul. "I am a firm believer that you start your day within the words of prayer, prioritizing my time with God."

Paul is indeed a faithful Christian, serving within the church, and even allowing God to nurture each and every day. But like many other followers of Christ, he too has had his tests from God. In 2020, he exited a relationship that could have headed towards marriage, struggled with alcoholism, and was living a different life outside of church. Making bad decision after bad decision, Paul felt



as though he had hit rock bottom in his life.

At one point, in a lapse of judgment, Paul was left stranded on a mountain after taking his car to go off-roading. "I'll never forget, dealing with that whole ordeal and getting back home, there was a cross on the drive back home," Paul explains. "I didn't go back home so I turned back around. And when I saw that cross, in that instance I realized there is nothing I am on my own accord. Even at my lowest of lows I will still praise God. What else can I do but praise Him? That was the first taste of what it meant to die to myself, because then Christ lives in me." And even though he has had his regrets, Paul is glad about what happened in his journey. To see rock bottom, Paul sees that there is nowhere to turn but up, where we can see God's glory.

Through his experiences serving in ICCC, Paul hopes that others can know that God wishes to get closer to them. "I think it's so important to realize that the time we have to serve is a gift, but it's not forever," Paul explains. "So in that time of serving, it's important to find joy in it."

Chris Kim

■ Brother's Appreciation day

On March 19, 2023, the sisters of ICY hosted a brother's appreciation banquet. We wanted to express our gratitude and thanks to our brothers who have done so much for us and for our church, including those who are part of the praise team, media team, small group leaders, and pastors. The ICY sisters have been preparing for this amazing banquet for 2 weeks with every bit of their heart.

To make this banquet special, the ICY sisters prepared starting from the 12th of March when we filmed and prepared for a music dance video to the song "OMG" by New Jeans. We made every verse meaningful and applied our appreciation for the brothers into the song. On March 18th, we went to multiple stores to buy ingredients and decorations. Then, we started decorating the ICY room with tables, lights, and photobooth. We also baked over a hundred cookies for the brothers for several hours from scratch. Afterwards, the sisters handwrote cards and decorated them with words of appre-



ciation. Then, on the day of the banquet, we arrived early to church and prepared posters for the brothers. On March 19th, the sisters served the brothers with food and prepared several games and activities. The games included arm wrestling in which the brothers had great fellowship.

The ICY sisters worked very hard and put all their effort into preparing for this banquet. They showed their love and appreciation for the ICY brothers. This event c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help of PSG, ICY sisters, and leaders.

Katie Lee & Yeeun Cho

■ **네팔 산행/ 김경배 장로**

안나프루나 오르는 길... 신비하고 놀라운 그 느낌!

산행교우님들께! 보내주시는 성원에 비해 연락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네팔 이곳은 모든 것이 편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에, 아주 높은 산악지역인지라, 우리 보기에는 높지만, 그 정도 높이는 너무 많아 수백 개의 이름도 없는 산들이 겹겹이 중첩되어진 지역입니다. 그 중에 그래도 사람이 모여 살던 마을을 통해서 가장 짧고 안전하게 다져진 길을 통해 걸어야 합니다. 대부분 9박10일에 걸쳐 방문합니다. 5-8월 우기는 물론, 구름보다도 훨씬 높은 지역이라 거의 매일 비가 오고, 춥고, 힘든 당연한 곳입니다.

출기는 왜 그리 추운지?... 아래 도시는 24° C 라는데... 이 높은 곳은 거의 -5° C 입니다. 그만큼 높다는 것이죠. 온몸이 땀에 젖어 옷을 말릴 수가 없어 제일 불편했습니다.

산허리를 최단으로 돌아도 수백 년 전부터 만들어진 길을 따라 올라갔다가 내려가



면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라 한 부락을 가는 데 하루가 걸립니다. 이렇게 이곳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 그냥 밭 일구고 높은 산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지나 목적인 Annapurna와 Machapuchhare라는 높은 산의 허가된 지역까지만 다녀왔습니다. 결론은 쉬운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어도... 마지막 최종 목적지인 MBC에서 ABC를 걸었던 2시간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놀랍고, 평생 잊을 수 없는 백설에 비추인 햇살을 반사하는 산세의 신비함은 체험해 보지 않은 분에게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힘들게 고생하며 걸었던 사진을 그냥 보낼 수밖에 없으니... 상상만 하세요.

ABC에서의 몇 시간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위대한 자연 Nature를 보며 speechless!!!

그림같은 한강, 화창한 봄날씨 '뷰티풀 서울!'

■ **서울마라톤 완주/ 앤젤리나 임**

한인 2세로 저는 마침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간이식 외과 의사와 함께 연수 프로그램을 하면서 두 달 반 동안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서울 국제 마라톤을 위해 훈련도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한강변을 따라 달렸습니다. 아침과 밤에, 그리고 눈이 오고 화창한 날에도 자전거 타는 사람들과 걷는 사람들을 보면서 달렸습니다. 이것을 통해, 저는 서울의 아름답고 평범한 많은 지역들을 구경 하였습니다.

몇 주간의 훈련 후에, 저는 처음으로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26.2 마일 코스는 광화문에서 시작하여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 끝나는 서울의 상징적인 지역

을 횡단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지나 청계천을 따라 달리고 성수를 지나 잠실대교를 넘어 한강을 건너면서 도시의 많은 부분을 보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약 3시간 37분 만에 완주했습니다. 마라톤을 하는 동안 울고 싶은 기분이 들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유는 달리는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저와 함께 달린 수천 명의 마라토너들이 몇 달 동안 훈련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이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낸 것에 대해 너무 자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히 경기가 끝날 때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활기찬 미소와 환호, 그리고 자랑스러운 등의 토막임을 보고, 저는 마치 파티나 축하 행사에 온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라톤은 축제였습



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주신 힘과 인내를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 Angelina Lim |

■ 선교사의 삶/ 조용득(미얀마)

성과와 실패... 자살 직전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

저는 가난한 농촌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경북 청송의 벽지 두메산골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우리집은 가난하여 하루 한 끼 식사로 연명했는데 그것도 밥이 아닌 감자, 고구마, 옥수수가 전부였습니다.

미국 북장로교 파송선교사님 이셨던 구의령 최복순 선교사님이 가난한 우리마을을 찾아오셔서 우리 형제에게 미국에서 가져오신 쪼는 염소 2마리를 선물해주셨는데 우리 가족은 매일 아침 염소젖을 짜서 마을 사람들에게 팔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저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Williams Albert drubb 선교사님처럼 목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선교사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입대했는데 대대장님은 저에게 군종병을 맡으라고 임무를 주셔서 군생활 기간 동안 설교와 전도로 목회자가 되는 훈련을 했으나 막상 제대를 하니 개척교회를 하시며 힘들게 살아가시는 아버지 목사님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신학교 입학에 보류하고 가구공장 견습공으로 2년6개월 가구를 배워 26살이 되어서 가족소과 전문회사인 한국가족소과사를 창사했습니다.

신학교에 가라는 어머니에게 나이 50

전에는 꼭 신학교에 갈테니 어머니는 기도나 해주세요 라며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사업은 잘 되었고 한국에서 최초로 외국에 가족소과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지만 1987년 IMF가 오면서 저는 회사가 부도가 나는 위기를 만났고 자살하기 위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는 이 돈으로 태국인 필람과 소과공장을 차렸습니다. 공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했고 직원이 168명으로 늘어나 일본에 많은 소과를 수출하고 있을 때 공장에 불이 나 저는 자살하기 위해 차오프라야 강에 뛰어들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용덕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말씀에 용기를 얻어 다시 시작한 사업은 2009년에 세계에서 가족소과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회사로 인정받아 저는 태국소과왕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미국에 업무차 출장을 갔는데 방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 나이 48세 때이고 제 인생에서 최고로 성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제가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태국장로교 신학교에 입학하여 신학공부를 하고 위클리프대학교 신학 석사과정에 편입하여 2016년 12월 5일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주합동총회 해외 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방콕한인연합교회에서 선교사로 사역 중 미얀마로 가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태국에서 25년간 살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 조용득 선교사는 예장미주합동총회 추천으로 본 교회에서 후원결정 과정 중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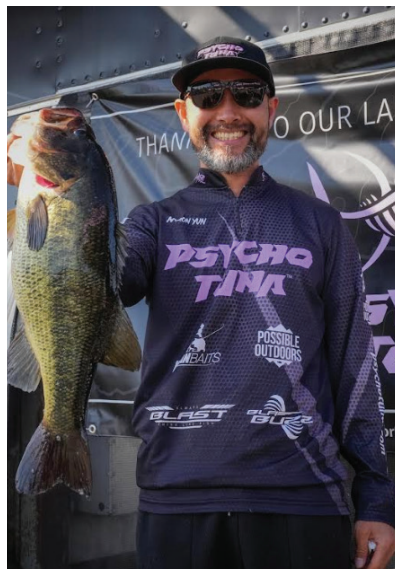
방콕에 도착해서 저의 주머니를 보니 지갑속에 한국 돈 8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죽으려고 태국으로 갔는데 방콕 거리의 가난한 사람들을 보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가진 돈 8만 원을 태국 돈으로 환전하고 노숙자 생활을 해가며 길거리에서 조화를 만들어 팔았는데 그 곳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시고 계셨습니다.

방콕 온 지 6개월만에 저는 태국 돈 200만뻬(한화 7000만 원)을 모았고 저

■ 대어 낚았어요!
(윤석중 집사)

낚시에 매력에 빠져, 두 번째 커리어로 생각할 정도로 낚시를 사랑하는 윤석중 집사. 몇 년째 Bass Fishing Tournament에 참여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15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경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그 모든 과정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함께 응원합니다!



■ 17목장 분가했어요~ 17 목장은 4월부터 17A 목장과(목자: 이복희 권사) 17B 목장(목자: 장재희 권사)로 나누어졌다. 부흥이 되어서 나누게 되었지만 한편으로 섭섭하기도 하여 지난 3월 23일에 시미밸리 레몬파에서 모임을 가졌다. 마침 4명의 목원이 생일을 맞이하여 함께 케익을 자르고 나누는 생일축하의 시간도 즐겁게 가졌다. | 임용자 기자 |

■ 사역국 소개/ 새가족국

‘편안하게, 친절하게, 정성스럽게’

주안에교회에 첫 발을 옮기시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를 하는 사역국이 새가족국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곳이든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함이 감돌 수 있는데 특별히 교회는 그 느낌이 이방인처럼 더욱 강하게 다가오는 곳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기도 하다.

김진석 장로님과 김선자 권사님께서 국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주안에교회의 새가족국은 함께 섬기시는 10여 명의 팀원들과 함께 처음으로 방문을 하시거나 등록을 하신 분들이 주안에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를 잡아갈 때까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

또한 거의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도 대접하며 서로 얼굴도 익히고 담임 목사님과 대화의 자리에도 참여하게끔 “주안에만남”이라는 행사를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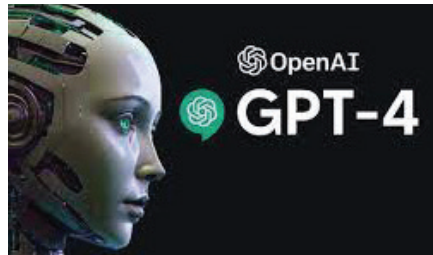


는 거의 베테랑급의 수준으로 준비를 하신다고 한다. 이렇듯 주안에교회의 새가족국의 헌신이 여러가지 사연으로 인한 성도님들의 어려운 발걸음에 힘을 실어드리고 마음을 열어드리는 등대의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며 응원한다. | 오희경 기자 |

대화형 인공지능, 질문·대답 이어가며 결과 도출

■ 챗 GPT 이야기

2022년 말부터 챗GPT란 단어가 여러 뉴스 매체들로부터 다뤄지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원래 이 기사를 지난 달 ‘주안에신문’에 게재하도록 준비하였으나 금년 3월 중 챗GPT의 새로운 모델이 발표될 것이란 예고가 있어 ‘GPT 4’ 출시와 함께 이번 호에 소개하게 되었다.



1. 챗GPT는 미국의 오픈 에이아이 (OPEN AI)란 회사가 2018년부터 개발하여 발전시켜오던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 2022년 11월 30일에 챗GPT3.5 모델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사용자들은 컴퓨터의 챗GPT-3.5 대화창에 알기 원하는 질문이나 요청 사항을 입력하면 곧바로 우리의 일상 대화형 언어로 된 답을 보게 되는데 대답의 내용이 사용자가 의도한 취지의 답이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요청하거나 보충 질문을 하면 즉시 수정된 답을 준다.

2. 이 서비스는 질문에 대한 대답뿐 아니라 * 어떤 내용이나 테마를 주고, 시나 소설을 쓰라고 하면 바로 시나 소설을 쓰고 그림 그리기나 노래 작곡을 요청하면 바로 작품을 보여준다.

* 사업계획이나 운영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 긴 글을 읽고 원하는 길이를 요약정리 하기도 한다.

* 교육현장이나 일상생활 등 다양한 방면에 활용이 예상된다.

* 챗GPT는 사용 방법이 간단해 익힐 필요가 없이 바로 보고 사용이 가능하다. 구글 검색은 질문 하려는 것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서 정확한 질문을 해야 바로 답을 찾는데 GPT는 비슷한 질문을 해도 대답이 나온다. * 영어와 한국어 등 27개 언어로 사용할 수 있고 번역도 가능하다.

3. ‘GPT 4’ 모델이 지난 3월 14일에 출시되었는데 ‘Open AI’의 발표에 의하면 GPT3.5 보다 성능이 많이 향상되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다 * GPT-4의 가장 큰 기능 향상은 이미지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밀가루, 계란, 우유가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이 자료들을 활용해 어떤 음식을 만들 수 있나?”란 질문에 - 팬케이크, 와플, 프렌치토스트 등이라 대답한다. 즉 사람의 눈과 같이 사물을 인식하고 이것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다.

* 언어 및 지적 능력이 더욱 창의적이고 똑똑해졌다. 알파벳 A부터 Z까지 이용하여 한 문장으로 신데렐라 이야기를 설명하라는 질문에 GPT-4가 완벽하게 해냈고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GPT3.5 하위 10%를 차지했었는데 GPT-4는 상위 10%에 들었다.

* 챗GPT3.5는 영어에 특화 됐었는데 GPT-4는 비영어권 언어들의 성능이 80% 이상 발전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의 정확도가 40% 이상 향상되었다.

* 긴 문서 작성 가능 이전 3,000 단어에서 15,000 단어까지 가능해졌다.

4. GPT의 개선해야 할 점 * 틀린 답도 맞는 것처럼 대답하는 현상을 환각 현상이라 하는데 많이 개선되었지만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중이라 한다.

* 현재는 입력되어 있는 것이 2021년 데이터까지 수록되어 있어 그 이후 사실은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곧 업데이트 될 것이라 한다.

▶ 가입 및 이용: * 구글 채팅 창에 <https://chat.openai.com>을 열면 login, sign-in 이 나오는데 sign-in을 선택한다. * Email address, Name, Telephone number를 넣고 가입한다. 가입 후 사용할 때는 log in을 선택한다. * 가입 후 사용료는 현재까지는 무료와 유료로 있는데 기본 사용은 무료로 알려져 있다. | 나형철 기자 |

■ 마더와이즈 "회복" 훈련 소감

십자가 핏값, 소중한 존재감

큰 기대없이 평신도사역훈련의 한 과정을 의무적으로 마칠 생각에 마더와이즈 회복원에 조인하기로 결심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훈련에서 내가 얻고 배우게 될 것이 무엇일까 하는 아주 실낱 같은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교재의 제목인 "회복"이라는 단어가 주는 희망같은 것이 아니었나 합니다. 개인적으로 크게 상처받고



고한선 피택권사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나는 어떤 회복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6주간의 훈련 시간들은 하루하루 내가 선택 받은 신부이며 신랑이신 예수님과 천국에서 만나는 꿈을 꾸게 허락된 시간이었습니다.

태초에 이미 선택된 나의 존재는 이미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귀한 존재로서 예수님의 신부로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에게 내어주신 사실, 나의 됴됨이로 평가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선택된 존재였다는 엄청난 사실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희열과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매주 훈련하며 새삼 치밀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유대의 결혼 풍습 안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구원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이 핏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다는 사실이 놀랍고 죄송한 마음 뿐이었습니다. 나를 그 핏값으로 사시고, 나를 돌보시는 신랑 예수님, 천국의 처소를 준비하시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그 날을 위해 이 땅에서의 약혼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사랑을 나 혼자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웃에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숙제를 내어주신 것 같았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저는 나와 하나님, 예수님과의 끊어질 수 없는 관계에 대한, 또 어떤 은혜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죄와 실수를 회개와 순종을 통해 용서하고 치유하시며 회복 시키시는지, 그 원리를 깨닫게 되는 가슴 벅찬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영원히 나를 돌러싸고 있는 듯 평안이 오고, 예수님께 신부로 묵인 존재임을 상기하면서, 그에 맞게 말과 행동으로 변화하게 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훈련 내내 느낀 사랑, 주님의 긍휼로,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나의 구원에 대해 벅찬 가슴으로, 가슴까지조차 어려운 그 깊은 사랑과 다시 오실 나의 신랑 예수님과 재회를 꿈꾸며, 떨리는 마음으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들을 깨어있으려 합니다. 천국의 처소에서 기뻐 춤추는 축제의 그 날, 영광스러운 그 날을 꿈꾸며...

■ 주안에삶 1권 훈련 소감

아는 단계에서 삶의 단계로...

교회 후보 광고에서 주안에삶 훈련 광고가 뜰 때마다 저 교육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권사님들이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받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지 않게 저도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아내의 권유로 이번에 주안에삶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박상근 집사

처음 교재를 받아 보았을 때 별 내용이 없네, 그리고 다 아는 내용인데 그냥 시간만 대충 때워도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과부터 6과까지 주안에삶을 진행하면서 아는 내용이긴 한데 불신자들이 물어 보았을 때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알아도 대충 아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설교에서 많이 듣고 배운 것들이지만 내가 실제 삶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저에 대해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주 성경을 묵상하면서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에 대해 찾아보고 한번 더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 하는 질문도 하면서 내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졌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집사님, 권사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항상 드라마틱하게 역사하고 계심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제가 편한대로 믿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고계실 때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실까 생각하니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너가 제대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살고 있으니 매일 고민과 염려로 가득차 있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들킨 것 같아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듭남, 회개, 믿음과 용서, 순종, 하나님의 가족 등 5과까지는 그래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조금은 하는 시늉을 했다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충만에서는 저를 돌러켜 볼때 성령충만의 열매가 하나도 제게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의 관계에서도 어떤 것 하나 제가 열매를 맺어 누리고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고도 내가 예수를 믿고 다른 믿지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전한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창피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안에삶을 통해서 제가 처한 광야의 현실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에 적용하려고 결단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내 안에서 성령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전하는 일에 생을 걸 수 있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음악산책/ '선행음 효과'

맹렬한 공격에 맞서는 '믿음의 기수'

개구리가 깨어나 울며 봄이 왔음을 알린다는 경칩은,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봄을 맞이하는 기대를 담은 한국의 절기이다. 농경사회를 이루어 살았던 선조들에게 경칩은 봄을 맞아 본격적으로 농사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때가 왔음을 알리는 반갑고도 중요한 날이었다.

개구리는 천적을 피해 낮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저녁이 되면 밖으로 나와 힘차게 운다. 수컷 개구리가 앞다퉈 우는 이유는 암컷에게 어필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 세레나데는 암컷뿐만 아니라 천적의 관심도 끌게 된다. 선창을 시작한 개구리를 뒤따라 다른 개구리들도 울기 시작하는데, 천적의 귀에는 제일 먼저 온 개구리의 소리만 인식된다.

위치가 다른 두 곳에서 짝을 두고 들리는 소리 중 먼저 들리는 소리만 인식되는 현상을, '선행음 효과'라고 한다. 일종의 청각 착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복잡한 환경 속에서 비슷한 소리가 연달아 들릴 때 뒤에 들린 소리를 무시해 본래 음원이 어디인지 헷갈리지 않도록 적응해 온 결과이다.

먼저 울기 시작한 개구리는, 천적에게 자신의 위치가 고스란히 드러나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을 각오하고 목숨을 건 세레나데를 시작한다. 덕분에 다른 개구리는 그 소리를 보호막 삼아 마음껏 목청을 높일 수가 있다.

과거의 전쟁에서는 기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깃발을 높이 든 기수를 필두로 군대가 정렬했고, 꺾이지 않고 당당히 휘날리는 깃발은 군대의 사기와 직결되었다.



그래서 상대의 공격이 집중되었고, 그것을 각오해야 했기 때문에 아무나 기수가 될 수 없었다. 깃발을 사수하며 전장의 선봉에 서야 하는 기수는, 명예가 뒤따르는 영광의 자리였다.

먼저 깨어 믿음의 기수가 된 사람들은 무수한 공격을 받게 마련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곳곳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간다. 솟아오른 깃발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은, 그 아래서 자신의 깃발을 올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닥쳐올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깃발을 올릴 때, 우리는 믿음의 최일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선포하는 또 한 명의 기수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 황성남 기자 |



■ 교회사랑 구슬땀

긴 겨울장마가 끝나고 새봄맞이 교회 대청소가 있었다. EM, ICY, 코람데오 그리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장로님들까지 안으로는 대청소와, 밖으로는 나무 자르기, 컨테이너 정리와 옮기기 등.. 힘은 들어도 마음은 날씨만큼이나 밝았다.



NEWSLETTER

'주안에' 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뉴스레터 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나형철, 류명수, 이광영, 이성은, 이예스더, 이현영, 임용자, 조용대, 황성남(기자)

양영, 박민, Paul Yang (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